

월요광장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도서관 공사 중이다. 냉난방기, 화장실, LED램프, 보일러 배관 따위의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손본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을 아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정을 잡고 보니 불방학. 그래도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단장하고 아이들을 맞이하려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도서관 문을 닫는다고 알리고 도서 반납 기간도 연장하고 다시 만나자 약속했지만 “그런 우리는 도서관 못 와요?”라고 묻는 눈망울을 마주하면 정말 미안해졌다. 날마다 제집처럼 드나들던 도서관에 한동안 못 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다.

본격 공사에 들어가 먼지와 추위와 싸우며 짐을 들어내느라 정신없는데 아이들은 지루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대체 도서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호기심

법조칼럼



김 용 규
광주지법 판사·기획법관

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한 녀석은 6살, 한 녀석은 5살인데, 이 개구쟁이 형제는 그야말로 활력으로 뿔뿔 뿜친 우리 집의 귀염둥이다. 이 형제는 대체로 사이가 좋은 편이기는 하나, 여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여러 이유로 다투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한 녀석이 울고 있거나 토로져 있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부모의 시선이 머무는 범위에서 놀다 보니, 이 형제의 다툼은 보통 아빠(또는 엄마)의 한마디로 정리된다. “아빠가 봤어?”하면, 둘 중 잘못된 녀석이 “힘”하며 꼬리를 내리는 식이다. 통상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반 년 정도 전일까, 어느 날 이 녀석들이 다투다가 엄마, 아빠 앞으로 불

어른을 일깨우는 아이들의 위대한 질문

가득한 얼굴이다. 나도 처음 보았다. 버든 하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기계 속에는 어마어마한 공정이 숨어 있을을. 수많은 선들이 바다과 머리 위로 흘러 다니고 배관으로 나온 선들이 높다란 천장에서 주룩주룩 내려와 있는 모습은 마치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지금은 들어오면 안 돼. 봐, 위험하겠지? 여기 ‘임시 휴관’이라고 써있는데 못 봤어?”하니까 아이가 되물었다. “근데, 휴관이 뭐예요?” 아차! 어린 아이들에게 ‘휴관’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한 빨간 글씨였구나.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써 놓아야 했다! 버릇처럼 쓰니까 익숙해져서 아이들의 언어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허를 찔러 준 아이의 ‘질문’이 참으로 고마웠다. 인간은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질문은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세상을 이해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다. 질문할 때 비로소 인간의 세상에 톨도 없는 존재로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은 왜 어른들 맘대로 하나요? 케이크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벌은 벌에 쓰일 수 있나요? 전쟁은 왜 하나요? 제일 처음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좋은 것은 어디서 오나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왜 더 천천히 가나요? 숫자는 영원히 계속 커지나요? 단 것은 몸에 나쁜가요? 신은 누구인가요?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소가 1년 내내 방귀를 한 번도 꾸지 않고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터뜨리면 우우로 날아갈 수 있나요?”

“어른을 일깨우는 아이들의 위대한 질문” 가운데 몇 가지 예다. 그야말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질문들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철학적 난제의 중심을 건드리는 촌철살인의 질문을 듣고 혹 들어온다.

위 질문의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답할 자신이 없다. 거시기 머시기 훑설수설하다가 화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진땀 빼지 마 허를 찔러 준 아이의 ‘질문’이 참으로 고마웠다. 인간은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질문은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세상을 이해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다. 질문할 때 비로소 인간의 세상에 톨도 없는 존재로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은 왜 어른들 맘대로 하나요? 케이크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벌은 벌에 쓰일 수 있나요? 전쟁은 왜 하나요? 제일 처음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좋은 것은 어디서 오나요? 시간이 빨리

두 아들이 준 교훈

러 왔는데,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며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당시 아내가 몹시 당황했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직업병이 발동했던 탓일까, 나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 가려보고 싶었다. 어느 형사법 세미나에서 들었던 기억(사리학적 접근 방식에 바탕을 둔 아동 증인 신문기법,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발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을 되살려 아이들에게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녀석 다 말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말이 앞뒤 맥락도 비교적 그럴 듯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이들이 각각 아빠의 눈을 바라보며 자기 말이 진실이라 ‘변론’하는데, 정말 당혹스럽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선불리 하나를 지목해 추궁하다가 아빠를 원망할까 싶어 그렇게도 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진상 규명’을 포기하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 함께 누워 잠을 재우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다. ‘이것, 사건이었다면?’

보통 재판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양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재

판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판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른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판사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심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찾으려 한다. 판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아이들 다툼에 증명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우습지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판사는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증거를 충분히 제시 못한다면 판사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 판단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그리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증명책임이라는 개념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유용한 장치가 된다.

두 아들이 다툼 그 날 밤, 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왜였을까. 단순히 누구 말

‘단속사회’/창비)이라고 했다. 인간, 동물, 식물, 유령, 괴물은 존재나 유형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요소라고 했다. 관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속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괴물이 된다. 이를 연결 짓는 요소는 질문이다.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광화문 현판에 내걸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글귀를 기억한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질문의 책)에서 인용된 그 한 줄은 피곤에 찌들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정신의 우물가로 데려가 우리가 사유하는 인간임을 일깨우는 찬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다. 좋은 질문은 그대로 예술이다.

어른들을 일깨우는 아이들의 위대한 질문, 나왔던 그 아이가 던지는 질문을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청하고 환대하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어린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이들의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한없는 신성한 속내에 방글거리게 하는 귀중한 보배다.

이 맞는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동안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판단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는 법률이 정한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인 나에게 ‘아빠가 진실을 밝혀 주세요’라고,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이들 다툼의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판사로서가 아닌 아빠인 나에게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사에게 주어진 당연한 업 중 하나라고만 생각해왔던 것 같다. 그러한 판단이 재판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와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요즘도 두 아이들이 말을 만하면 이따금 내게 비슷한 숙제를 준다. 황희 정승처럼 ‘행 말이 맞다, 동생 말도 맞다. 그러나 이제 ‘아빠랑 자자’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법 자란 것 같다. 믿음직한 아빠가 되려면 아무래도 내공을 더 많이 쌓아야 할 것 같다. 다행히 오늘은 두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었다.

기 고



나 경 택
전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사장

1980년 5월 광주는 잿빛, 아니 핏빛 세상이었다.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몸이 떨리는 공포와 분노, 한을 안겨주는데, 하물며 그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기록해야 하는 사진기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사선을 넘나드는 나날이었다.

나는 수년간 계엄군의 만행 등이 담긴 중요한 필름을 우리 집 천장 속에 숨겨 두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광주의 진실을 국내외에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그러다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소속 신부님 등이 5월 관련 책을 내야겠다고 나를 찾아왔다. 결국,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곤봉으로 내리치는 장면 등 그날 그 현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정평위는 제공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월 항쟁 사진집 ‘오월 광주’를 만들어, 전국에 있는 천주교회를 통해 배포

발포 명령자는 누구냐?

했다. 5월 항쟁 사진집이 나오고 전시회를 한 때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다. 이 일을 계기로, 광주항쟁을 취재했던 다른 신문사 기자들의 사진들도 속속 공개되었고,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5년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광주의 진실과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면서 2010년 폐지됐다.

5월 21일 낮 12시 40분께다. 동구 금남로 1가 YMCA 앞에서 방어벽을 친 계엄군은 시민과 학생들에 의해 분수대를 넘어 전남도청 정문 앞까지 밀려났다. 이때 나는 전일빌딩 9층에서 숨어서 취재를 하다 위험을 느끼고 전남도청 정문 앞으로 갔다. 카메라는 옷 속에 숨기고 정보 형사처럼 행세하고 대처하는 공수부대원 사이로 갔다.

공수부대 차 도 대위가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그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10분 후, “발포 명령 떨어졌습니다”라며 통신병이 큰소리로 차 대위한테 보고하자 그대로 시민들을 향해 발포가 시작됐다.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내도 ‘발포 명령’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발포명령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차 대위는 이날 시내를 빠져 나가면서 우리 군인들끼리 오인사격으로 숨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광주시가 2009년 5·18 민중항쟁 제29주년을 맞아, 항쟁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해서 발표했다.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3139명, 구급 및 구급, 기타 피해자 등을 포함해 총 5189명이다. 진압 경찰 및 군인 등의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으로, 이들은 1980년 6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광주의 진실은 아직도 미궁 속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더 이상 밝혀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지만, 오늘날 5월 광주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록했던 사진기자들의 역할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1988년 국회 광주정문화 때는 항쟁 사진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여 당시 계엄군 장교로부터 자책을 많이 받아냈다. 2001년에는 항쟁 당시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2011년에는 취재 필름 등의 5·18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민중항쟁으로 명명되고

널리 알려지게 됐다.

광주 지역에서만 전시되던 5·18 사진들이, 2013년 5월에는 5·18 33주년을 맞아 부산 해운대의 ‘고운사진미술관’에서 3개월간 전시되었다. 사진전에 온 많은 부산 시민들이 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되었느냐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사진은 기록이다. 특히 흑백필름은 거짓이 없다. 기록은 기억을 앞선다. ‘고운사진미술관’은 자매결연을 한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다섯 나라에서도 차례로 5·18 사진전을 가질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2015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대한민국 민주화의 길’이란 주제로 ‘4·19 의거’와 ‘5·18 광주민중항쟁’, ‘6·10 민주항쟁’ 관련 사진을 전시했다. 이처럼 5·18 민중항쟁이 국가기관의 하닌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8년 5월 항쟁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로 ‘꽃잎’, ‘화려한 휴가’가 있다. 올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영화도 만들고 있다. 진실은 더듬는 지 모르나,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다. 발포명령자도 밝혀지리라 믿는다. 1980년 5월, 꽃잎처럼 스러져간 젊은 이들의 귀한 영령 앞에 두 손 모아 명복을 빈다.

社 說

탄핵만 피하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단 말인가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소추위원과 이를 막아내야 하는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진검승부’를 벌이는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탄핵 반대 세력의 선동과 협박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현재 심판정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예사로 하기도 했다.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것이다” 따위의 선동적인 말도 서슴치 않았다. 이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은 예초부터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 같다. 현재 결정을 뒤집기 위해 지지층 결집과 극한적 반발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한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현재 재판관 등에 대한 테러 위협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정

지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의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장외에서 여론전을 펴는 방법도 고려중이라는 데 느닷없이 자진 사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 탄핵당할 바에야 자진 사퇴할 테니 탄핵은 각하하고 형사책임은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진 사퇴의 길을 터주면 또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게 뻔하지 않은가.

지금까지의 박 대통령 측 대응을 보면 현재 결정이 나오는 순간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혼란과 국가 분열은 알 바 아니요, 나라가 어찌 되든 탄핵만은 모면해 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하지만 힘차게 달려온 탄핵열차를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 위한 부모 교육 절실하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양에서는 지난 23일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2년3개월 만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닷가 아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입

근 4년간 아동 학대 범죄가 11배나 급증했다. 어제 발표한 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는 1만8573건으로 이 가운데 36명이 사망했다. 학대로 인해 하루에 3명 꼴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아동 학대 근절의 원년 운운하며 다양한 대책을 쏟아 냈다. 빅데이터로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자 범위를 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율은 28%로 선진국의 절반에 그쳤다.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학대 주체인 부모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학대하는 사람의 80%가 부모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공교육에서부터 부모 교육을 강화해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처리 현황’을 보면 광주·전남에서만 최

아동 학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나주에서 세 살배기 조카가 대소변을 못 가리다며 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2월에는 의붓딸의 앞에 청타이프를 붙이고 물고문을 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아동 학대가 최근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아동 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광주·전남에서만 최

無 等 鼓

1980년대 중·고등학생이었던 현재의 50대 남성들은 아마도 ‘맘보’라는 영화를 잊지 못할 것이다. 실버스타 스탈론이 주연을 맡았는데 ‘맘보’이 1982년 개봉했다. 이후 3년 주기로 ‘맘보’, ‘맘보3’(88년)가 개봉했다. 워낙 인기가 있었던 탓에 개봉일에는 영화관마다 긴 줄이 늘어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영화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미국 위주였지만 그런 걸 의식할 겨를은 없었

다. 당시만 해도 마땅히 볼 만한 영화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나을 때마다 매번 크게 히트했던 이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베트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에 참전해 적군(?)을 무찌른다는 단순한 내용이다.

영화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미국 위주였지만 그런 걸 의식할 겨를은 없었다. 당시만 해도 마땅히 볼 만한 영화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나을 때마다 매번 크게 히트했던 이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적군에 적군에 붙어 포로를 탈출시키면, 때때워 등장한 코브라 헬기가 주인공을 쫓는 적군을 벌컨포로 쓸어버리는 장면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전쟁 영화에는 벌컨포를 탑재한 코브라 헬기가 적을 섬멸하는 장면이 나온다. 코브라 헬기와 벌컨포는 ‘미국은 정의이며, 세계 최강’이

벌컨포

격추하는 공대공이나 헬기와 전투기에 탑재 지상 전자 및 시설을 파괴하는 공대지 두 가지가 있다. 코브라 헬기와 벌컨포는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개입한 많은 전투에서 파괴적인 살상력을 입증했다.

최근 80년 5·18 당시 코브라 헬기가 시민 진압 과정에서 벌컨포 사격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이라고 하지만 전쟁에 사용하는 최강의 무기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당시의 진상 조사에 도움이 될 많은 증언과 증거물을 기다리고 있다. /채희홍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